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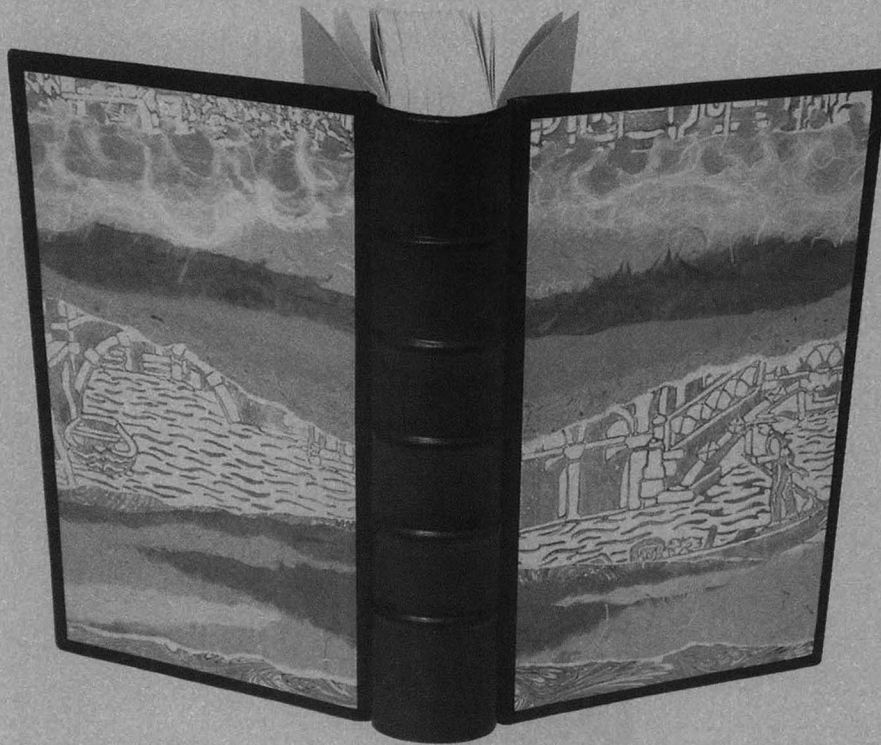
# 제본가의 마음, 성실이 보입니다

액자를 제본은 책표지의 가죽이 액자의 틀과 같이 장식을 둘러싸는 형태의 제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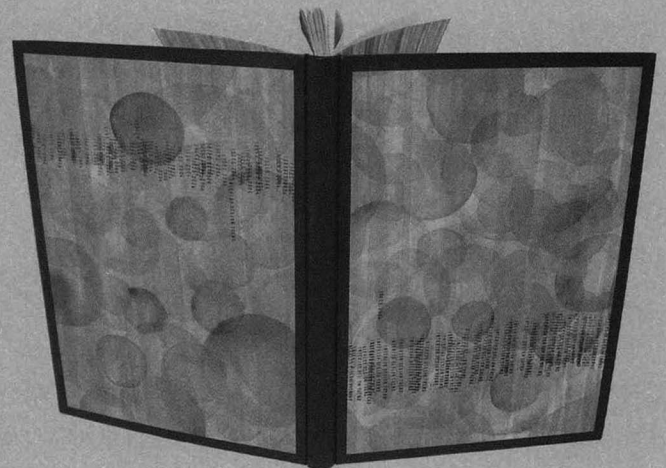
이 제본은 현대에 와서 제본가들의 기호에 맞게 보완된 형태이다.

고전제본, 특히 1/2(반제본)의 장식에 있어서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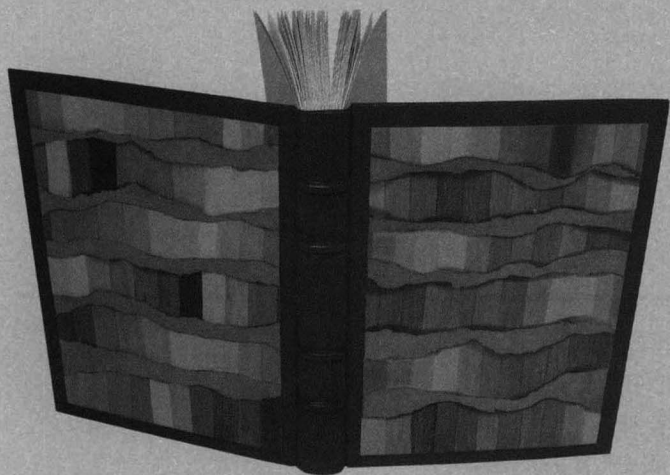
백순덕 | 렉토베르소 (www.rectoverso.co.kr) 대표



1.  
제본가. 이현숙  
프로이트 여행편지-우리의 마음은 남쪽을 향한다  
웅진북스  
136 x 210 mm  
고전 액자틀 제본  
염소가죽,  
색지를 이용한 꼴리주



2.  
제본가. 심현정  
ideas(2004 interior design trend)  
LG chem. 안그래픽스  
222 x 310 mm  
브라델 액자틀 제본  
염소가죽  
수채화지에 수채, 채색한 면지



3.  
 제본가. 백순덕  
 Pareils a des enfants  
 Mark Bernard  
 L'imprimerie de Monaco  
 143 x 200 mm  
 고전 액자틀 제본  
 염소가죽, 세무 표지에 염색 후 그을린 종이

액자틀 제본은 책표지의 가죽이 액자의 틀과 같이 장식을 둘러싸는 형태의 제본이다. 이 제본은 현대에 와서 제본가들의 기호에 맞게 보완된 형태이다. 고전제본, 특히 1/2(반제본)의 장식에 있어서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### 1 1/2제본과 결합된 액자틀 제본

다섯 개의 돌출띠를 갖는 책등은 매우 엄격해 보이지만 책 표지의 지적인 구성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엄격함보다는 고급스럽고 안정되어 보인다.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돌출띠와 자유로운 표지장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제본가들이 좋아하는 제본형태다.

이 책을 제본한 이현숙씨는 공방 렉트베르쑤에서 맨 처음으로 고급반 과정을 밟게 되었다. 두 달 간의 해외여행 기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한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다. 때로는, 이 세상에 나와 제본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, 나보다 더한, 제본마니아를 만나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. 이 책의 표지장식은 그녀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구입한 종이를 사용한 것이다. 자신의 회사에서 나온 책을 읽고 제본하며 그녀가 느꼈을 행복감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하다.

### 2 브라델 제본과 결합된 액자틀 제본

책 두께가 얇고 가벼운 현대적인 책에 어울리는 브라델 제본과 연결시킨 작품이다. 특히 브라델 제본은 책등과 판지가 길게 파악된 홈에 의해 연결되므로 느낌이 다분히 심플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준다. 더불어 둥글려진 책등의 곡선과도 잘 어울린다.

3 4개의 돌출띠로, 고전 중에서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. 이들 돌출띠들은 책의 두께가 있고 듬직한 책에 어울리는 형태이다.

모든 일들이 그러하듯, 제본 역시 작업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정성에 비례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다. 이 브라델 제본은 이 책의 디자인을 직접 한 제본가에 의해 태어났다. 책등의 가죽과 액자틀 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심현정 씨는 3개월 동안의 마음고생 끝에 결국 성공적인 제본을 할 수 있었다.

나는 나의 제자들이 제본작업을 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즐겁게 바라본다.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의 암담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마침내 한 걸음 더 올라선 그 큰 희열의 순간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다. 이런 제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 늘 마음이 벅차다.

이와 같이 액자틀 제본은 보기에 좋고,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 즐겁긴 하지만 매우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.

책등에서 이어진 가죽(표지 이음매) 이외의 세 부분의 가죽들은 정교하게 갈아 두께를 일정하게 줄여야 한다. 또 네 군데의 가죽 이음 부분은 외형상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감쪽같이 이어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

따라서 액자틀 제본은 어느 정도 제본실력이 쌓인 후에 시도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. 